

한배달 '품다 강좌'



알고 마시면 맛 향 두배



서울 종로 한배달 사무실에서 열린 '품다(品茶) 강좌'에서 수강생들이 고려다원 허서룡(사진 위)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차 고르는 기준

■ 마른 찻잎의 생김새
-크기가 고르고 가지런해야 한다. 깨진 잎이나 털 퍼진 잎, 줄기 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찻잎은 색깔이 윤곽하고 단단하게 말려져 있어야 한다. 털 말린 잎이나 등쳐진 잎이 있으면 좋지 않다.
-백호(白毫, 찻잎 뒷면에 있는 흰털)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차가 좋다.

■ 찻물의 색·향·미
-색은 맑고 투명해야 한다. 찻물이 혼탁하거나 가루나 검은 티가 많이 가라앉는 차는 좋지 않다.
-은은하고 맑은 향이 나와야 한다. 발효나 저장을 잘못하거나 오래 묵은 차에서는 쉼 냄새와 뜬 냄새가 난다. 비릿한 쉼 냄새와 탄 냄새가 나는 차도 좋지 않다.
-제대로 만든 차의 맛은 달고 부드럽다. 상쾌하면서도 짙은 감칠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한 차는 쓰고 떼운 맛이 강하게 나고 뒷맛이 텅텅하다.

■ 우려낸 찻잎의 모양
-찻잎의 생김새와 빛깔은 균정(均整)해야 한다. 찻기(揀剔)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오늘 처음으로 마셔볼 차는 백차입니다. 백차는 성상(成相)이 가지런하지만 성질이 차고 냉합니다. 녹차에 비해 달지만 맛이 농후하지 못해 생산과 소비는 많지 않습니다. 찻물이 우려나는 시간은 일반 차의 2배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1월 9일, 고려다원(www.hadongtea.com) 허서룡(사진 위) 대표의 '품다(品茶) 강좌'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에 한배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1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강의에 듣고 있다.

강의가 시작되자 수강생들은 찻잎을 나누어 받은 후 찬찬히 모양을 살펴보고 각자의 다기에 넣어 우려낸다. 차가 우려나는 상태를 관찰한 후 한 모금씩 마셔보며 향과 맛을 감상한다. 틈틈이 차의 특징과 느낌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차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차의 맛과 향을 감상하는 '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만큼 다양합니다. 또 비슷한 이름의 차라 할지라도 산지와 등급, 제조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천차

만별입니다. 때문에 '품다'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나 만드는 이 모두에게 중요한 기본 바탕입니다."

'품다 강좌'를 맡고 있는 허 대표는 우리 차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해 차의 맛과 품질을 제대로 감별하는 능력

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실 국제적인 품다 기준은 차 무역이 활성화된 20세기 초에 완비됐습니다. 차를 수출, 수입하는 차시점에서 이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산지역이나 제조방법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없는 까닭에 대체로 찻잎의 채취 시기로 차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전'이나 '세작', '중작'

등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찻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등급을 결정하는 유통 시스템이기에, 간혹 차의 맛과 향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정부가 차 관련 공식 기관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기 보다 직접 차를 소비하는 사람이 품다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맞는 차도 선택할 수 있고 차의 품질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허 대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등급의 차를 마셔봤을 때 종합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포장된 상태에서 차가 판매되는 우리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다양한 차를 직접 마셔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강좌를 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의는 1시간의 이론 강의와 1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차에 대한 기본 지식과 품다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직접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그 맛을 평가한다. 강의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국내의 대표적인 녹차와 발효차 30여 종을 마시게 된다.

성공관대 대학원에서 다도를 전공하고 있는 김미라(31) 씨는 "학교에서는 차를 직접 마셔보는 실습이 부족하던 이번 강의에서 다양한 차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차를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허 대표가 말하는 '좋은 차'란 무엇일까?

"우선 차는 마신 뒤 개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찻잎의 모양은 고르고 가지런해야 하고 우윳을 때 균일하게 우려내며 맛과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우려낸 후에는 찻잎이 가지런하고 깨진 잎이 없을 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요묘한 향과 맛을 즐기는 것을 두고 차를 '몸'으로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자신의 체질과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신의 체질과 차의 성질이 맞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02)747-8984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문화 교육현장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선방의 차향기 세상으로...

'행복한 삶,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전통문화인 '차문화'와 21세기의 화두로 급부상한 '사회복지'와의 만남을 시도한 부산여자대학교(이사장 정상구) 차문화복지과는 단연 돋보인다.

2003년 학부 최초로 차문화복지과를 개설한 부산여대는 불가(佛家)의 선방에서 명맥을 이어온 차문화를 현대의 복지현장에 적용하려는 신선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학 부설 차문화복지연구회는 차를 통한 치료법



'다촌 치료법' 개발 효과 입증 정서, 신체 장애 등에 활용

인 '다촌치료법'을 개발, 정서 장애아, 비행청소년, 노인 등에 적용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차문화와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책을 내고 차문화와 사회복지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차문화복지과는 차를 우려고, 차를 마시는 행위 모두를 복지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찻잔을 잡거나 차를 따르는 행위의 행(行) 차를 마시는 행(行) 차를 마시며 나누는 다담(茶談)을 정서적 기능 향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차문화복지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노인복지분야에 다촌(茶會)을 접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아동치료, 장애치료, 정서치료 등에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80명의 졸업생을 낸 차문화복지과는 주간반, 야간반 각 40명을 모집하며 야간반에는 차에 대한 사랑을 복지현장에 쏟으려는 60대 학생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교과내용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비롯 행다실기, 다도, 예절, 차의 성분과 효능, 꽃 예술학, 다구 감상, 차와 사회 복지, 다촌치료법 연구 등의 과목이 망라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실습실에서 실습도 빼놓지 않는다. 다도사범 1급, 사회복지사 2급, 다도전문지도사, 예절전문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주어지며 졸업 후 복지관, 학교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차문화복지과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치료 복지를 거부한다. 차문화의 생활화로 화(和) 경(敬) 겸(謙) 진(眞) 정(靜)의 차문화 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중심의 사회가 실현되어야 차문화복지과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인터뷰 정영호 학과장



시설·교육 프로그램 세계적 수준

"가장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차문화 복지현장에 적용하면 가장 세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영호 학과장은 차문화복지과의 학문적 연구와 적용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박물관, 다도

관, 다촌관 등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차문화복지과의 전망은 더욱 밝다는 게 정 학과장의 설명이다.

정 학과장은 "앞으로 다촌치료법의 연구 및 개발에 힘써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선진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참선은 아무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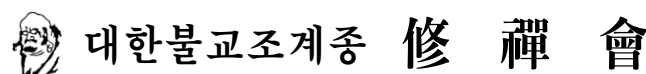
참선 교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 복을 갖춘 후에 대심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화탈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법부선-참선과 인과 법,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 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 할 일, 참선할 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 왜 참을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도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도굴생활 하는 법) 선사외의 백문백답(선재선사와 백문백답)]
- 2권** 회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소원과 撰提, 화두, 생각, 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당 법도, 사빈주, 동념즉지, 정념즉지, 임계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달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접근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열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진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준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선종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화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권 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참선교육 63기 교육(2월 10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제·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